

계육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방안



김영만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42일간에 걸쳐 발생했던 고병원성 AI가 양계산업 전체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남겼다.

이번 AI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파장이 컸다. 닭고기 소비량이 60%까지, 오리

고기는 80%까지 감소되는 등 관련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으며, 양계 생산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급상승하여 양계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정책과 더불어 축산농가·계열업체 등 계육산업 전반에서 자율적인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계육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육계산업 동향

1) 사육동향

국내 육계산업은 규모화·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사육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육계는 2003년 4천5백만수를 사육했으나, 2008년 6월 현재 7천8백만수 규모를 사육하고 있으며, 3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1,231호(2003년 743호)로 전업농가에서 사육하는 사육수수는 6천7백만수로서 전체대비 86%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규모화 및 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사육규모도 닭고기 소비량 증가에 따라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2) 소비동향

2007년도 우리나라 닭고기생산액은 1조275억원으로 축산업 생산액 11조2,773억원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 기준 순위 중 ①쌀, ②돼지, ③한우, ④우유 다음으로 닭이 5위를 차지하는 등 육계산업은 농축산물 생산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닭고기 소비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도 육류 총소비량 1백81만톤 중 닭고기는 43만4천톤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고기 소비량은 2003년 37만5천톤이었으나, 2007년에는 43만4천톤이 소비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3)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국내산 닭고기의 2007년 국내 도매가격은 2,030원/kg으로 미국 979원, 태국 968원 보다 높아 가격경쟁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닭고기가 대부분 냉장육으로 유통되는 점을 감안하면 품질경쟁력(신선도)에서는 유리하나, 수출산업화 정도에서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4) 닭고기 유통경로

국내산 닭고기의 유통경로는 크게 이중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계열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산지 중간상인, 중간유통상인의 취급물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AI 등 가금류 질병발생이 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생산농가의 철저한 질병방역과 더불어 계열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계육산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1) 품질 고급화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우량 유전자원 선발 보급 및 농가의 적극적 검정 참여 등을 통해 국내 축산물의 품질수준 제고와 종계 시설현대화 및 닭 경제능력검정소의 기능을 보완하고, 삼계용 병아리(백세미) 관리기준을 종계업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 직불제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2) 가축질병 근절

가축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소비감소, 매몰처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과 2008년 AI 발생을 계기로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하고, 닭, 오리, 야생조류(철새 및 텃새) 등에 대한 경로별 예찰 등 AI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운영할 것이다.

3)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질병 증가, 낙후된 사육환경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고, 향후 10년간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을 위해 환경보전, 자원순환, 동물복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지속 가능한 축산 모델을 제시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2007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한·육우 7m², 젖소 8.4m², 돼지 0.9m², 산란계 0.04m², 육계 0.07m²를 돼지는 0.9m²에서 0.7m²로 개정하고, 오리는 신설(0.23m²), 육계는 단위면적당 중량으로 변경하여 현실화되, 이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4) 가금산물 유통단계 투명화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작업장 명칭 등의 표기)를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을 차단하고, 수입산과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닭고기 포장유통 대상을 1일 도계수수 8만수 이상인 도계(압)장을 시작(2007. 1. 1)으로 현재는 5만수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전 도계(압)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5)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

항생제 사용감축을 위해 사료에 첨가가 가능한 동물약품 종류를 2008년 25종에서 2009년부터는 18종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공장에 대해 HACCP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육부터 판매까지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2003년 7월 1부터 모든 도축장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였고, 사육·가공·판매단계에 대해서는 HACCP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학교급식에 HACCP 축산물 사용 의무화, 군납업자 선정시 HACCP 축산물에 가산점 부여 등 HACCP 적용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

3. 향후 과제

축산물유통은 가격경쟁력 외에 위생·안전에 관한 시설, 장비, 성분과 규격기준 준수, 위생 안전조치 이행의 점검 등 추가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식품산업 영역이며, 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 가축질병, 동물약품, 중금속 등 잔류물질 함유 등 위해사고 발생시 축산물 전반에 걸친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외생적 영향에 민감하다.

가격과 위생상의 경쟁력은 사육, 도축, 가공, 저장, 유통 및 소비 각 단계마다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가변적이어서 지속적인 통합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는 사료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안정에 최선의 역점을 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규모화를 통한 사육단계 경영안정과 아울러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